제로-랜드(Zero-land)와 코드 1,1,1,0

(골1:1~14)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제로-랜드(Zero-land)와 코드 1,1,1,0>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제로-랜드(Zero-land)와 코드 1,1,1,0’
제로-랜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같은 나라이름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말이지요.
그래서 제로-랜드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하면 영국이 됩니다.
잉글랜드라고 할 때 영국은 한자로 꽃부리 영(英)자 아닙니까? 여기서의 영국은 숫자 영(0)을 말하는 그 영(0)국, 제로-랜드(Zero-land) 입니다.
도대체 제로-랜드가 어디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냐?
제로-랜드는 어떤 나라냐 하면,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 드리기 위해서, 관심이라고는 오직 하

나님만이 관심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관심 제로가 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제로가 됩니까?
내 가정의 관심, 내 사업의 관심, 내 건강과 내 인생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꽃피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 하여간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관심이 제로가 되려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이유는, 그 동안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러워진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이 집중 될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 마음의 관심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제로가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제로-랜드입니다.

그러면 코드 1,1,1,0 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마음의 관심이 제로, 관심이 제로라는 건 생각이 제로라는 것이고, 계획이 제로라는 것이고, 소원이 제로, 뜻이 제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로가 된 사람들이 제로-랜드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방식을 코드화한 게 1,1,1,0 입니다.
도대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제로가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삶의 방식이 1,1,1,0 이라는 거예요.
1,1,1,0은 뭡니까? 1이 세 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TV나 냉장고나 전자기구의 스위치를 한 번 보시면, 꼭지달린 사과가 있을 거예요.
그 꼭지달린 사과가 사과가 아니라, 꼭지는 1을 말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사과 모양은 0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1은 켜는 것을 말하고, 그 사과 같은 동그라미는 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면 켜지고, 그걸 다시 누르면 꺼지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1,1,1,0 이라는 것은, 내가 제로가 된 이 세상의 내 삶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켜지시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켜지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켜지시고, 성령님의 감동감화 하시는 교제의 역사가 켜지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을 코드화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주님이 살아 계시고, 성령님

이 살아 계시면서 삶이 진행되는데, 나는 세상 삶에 대해서 제로가 되어 있으니까 1,1,1,0의 코드가 된다는 겁니다.
제로-랜드가 있고, 제로-랜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세상에 대해 제로가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 제로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코드화 하면, 1,1,1,0 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두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이 제로 랜드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제로 랜드에 들어가서 1,1,1,0의 코드로 표현될 수 있는 삶의 방식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관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제로-랜드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도바울의 서신을 이해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언제나 돼지고기 삼겹살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층으로 돼있는 세 겹 시루떡을 생각하든지, 3층으로 된 케이크를 생각하든지, 삼겹의 차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비유적으로 상상하더라도, 언제나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바울의 서신을 읽고,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삼겹의 차원을 기억하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시고 계시는 하늘나라가 한 층으로 된 영의 차원이 있고, 그 밑에 공중의 차원이 있고, 그 공중의 차원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은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인격이 몸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과 인격이 머물고 있는 차원은 바로 공중이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머무는 땅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은, 이 공중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권세 잡고 있다는 게 뭐라고요?
인간들의 마음이 하늘에 대해서 닫혀 있고 이 땅을 향해서 열려 있어서, 지금 마음이 몸에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공중의 마귀의 권세 잡은 형국이 바로 우리 마음이 몸에 붙어 있는 것, 몸과 묶여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요, 항상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늘 밑에 공중이 깜깜했잖아요?
하늘과 아주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빛이 하나도 못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공중의 한 부분을 뚫으셨습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밀쳐 내시고 뚫으셔서, 공중에서 하늘과 열린 상태로 연결이 되는 하늘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바로 제로-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는, 이 역사를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셔서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게 바로, 그 공중에서 하늘빛이 막혀 있는 상태, 하늘에 대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몸에 묶여 가지고, 언제나 육체가 만나는 상황에 관심을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그게 사업이든, 내 건강 문제건, 하여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상황과 대상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던 게, 이게 암흑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어둠의 암흑 세상 안에다가, 마귀의 권세를 밀쳐내시고 빛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직 이것은, 보좌가 펼쳐진 하늘나라 그 자체는 아닙니다.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통치도 아닙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제로-랜드로 유지되면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해야 될 장소요,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가는 나라로서 제로-랜드라는 거예요.
그 제로-랜드가, 성경에 나와 있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바로, 제로-랜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통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그리스도 왕국의 도래고, 아직까지는 제로-랜드로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 전까지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아셨죠?
바로 공중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
마귀가 권세 잡았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쳤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물리쳤겠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으니까 당연히 공중에서 물리치신 것이고, 물리치신 만큼의 빛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대신 죽은 거니까, 면류관 쓰신 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뭔가를 일을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손대는 일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발로 뛰어서 성취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배에 창이 찔렸으니까, 소원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로가 돼서 제로-랜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어나는 일을 오늘 사도바울이, 골로새교회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골로새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한 다음에 골로새교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내용에서, 제로-랜드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제로-랜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이 바로 1,1,1,0 이라는 코드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잠깐 살펴봅니다.
제로-랜드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9절에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한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 빌립보서를 전해준 에바브로디도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간 그 소식을 들은 뒤로부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런 말들을 그냥 쭉 읽어 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것은, 제로-랜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일로, 성령님에 의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세상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사업이 하나님보다 앞선 관심거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내 사업이 아닌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로-랜드에 들어가면 그 제로-랜드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

나님의 약속이니까.
제로-랜드의 특징이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면서, 그 사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업이 맞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업을 허락해 주셨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도대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만 있는 계획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로-랜드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 제로가 되니까 나타는 첫 번째에요.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에 대해서 관심을 죽이는 기도시간을 갖는 거예요, 직장에 대해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증오 제로, 분노 제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내가 무덤에 묻힐 정도로 죽었는데 내 원수가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로-랜드에 가가지고, 직장에서 원수에 뺏기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면, 거기서 성령님께서 운행 하시면서 하나님 속에 갖고 계시던 생각들이 내게 주어지는데,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도 없는 생각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은,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도 그냥 읽고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국어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행동하는데 그게 주께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데 주님께 합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로-랜드에 마음이 들어가면, 내가 내 인격이 하늘에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 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내 인격이 주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오직 아버지에 대한 관심에서만 행동하고 말씀하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내가 장사하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그때 그 장사에 대해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죽어버립니다, 제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주님이 하나님아버지를 대면하고 계시는 그 현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주님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만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만 움직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또 다시 말하면, 장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주님답게 행하는, 나 같은 정말 버러지같이 못난 죄인이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행동하고 말한 게 주님께서 내 자리에 계셨더라도 그렇게 행동하셨을 행동을 내가 하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못난 사람들에게서.
주님께 합당한 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주님이 내 자리에 서 계셨더라도, 내가 한 이 행동 이외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께 합당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 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를 대면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아들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살 때 행한 것과 같이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로-랜드에 마음이 가 있으면 바로, 그렇게 주님이 내 자리에 계셨더라도 달리는 행동하지 아니하셨을, 주님도 그렇게 행동하셨을 그 행동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서 켜지시는 겁니다.
아까는 성령님이 켜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뜻들이 내게 알려졌는데, 지금은 주님이 켜지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져.
박 근혜 대통령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참모들이, 장관들이 박 근혜 대통령을 아는 것과는 비교가 안돼요.
아는 게 자라는 거예요.
아는 게 자란다는 것은 더 많이 친해진다는 얘기에요.
친밀함이 자란다는 얘기가 되지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으로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주님이 친한 것처럼 그렇게 친해진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켜지시면, 주님이 친하신 것처럼 그렇게 친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매력적이고, 그 분의 그 영화로운 모습이 얼마나 내게 황홀할 정도로 감미롭고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 그 분이 내 마음에서 관심의 대상들 중에 1등 했다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1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이 제로-랜드에 들어가서 한 번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지게 되면, 주님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아버지와 친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아버지를 제쳐놓고 다른 관심거리가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로-랜드에 머물고 있는 한.
우리가 십자가를 빠져 나와 이 세상으로 다시 나와 버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또다

시 다른 것이 관심거리가 되겠지마는,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제로-랜드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황홀하게 좋은 하나님의 좋으심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다른 게 관심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사실 기쁨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잘 안 맞는 분위기 아닙니까?
기뻐하는 데 뭘 참고 견뎌야 됩니까?
이게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견디기 힘들 거 같은 일들을,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너끈히 이겨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기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저 바다 위를 걷듯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로-랜드에 마음이 들어가서 이 세상을 잘 살고 나면,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성령님의 교제하심 안에서,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1,1,0 의 코드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흑암의 권세아래 있던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제로-랜드로 들어가서, 1,1,1,0 의 코드화 된 삶의 방식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